

R&L바이오, 바이오제약 R&D 박차

아산병원 최종우 교수와 공동연구 ... 성체줄기세포로 롬버그병 치료

바이오 제약기업 R&L바이오가 성체줄기세포치료제 분야에서 또 한 번의 성과를 거두었다.

R&L바이오는 서울아산병원 최종우 교수팀과 지방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를 자신의 지방과 함께 주사하는 방법으로 롬버그병의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5월8일 발표했다.

롬버그병은 얼굴의 한쪽 또는 양쪽의 조직이 점차로 위축되는 희귀 질환이다.

롬버그병의 치료법으로 각종 조직을 이식하는 수술법이 주로 사용돼왔지만 수술 규모가 크고, 최종 수술결과도 한계가 있어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요구돼왔다.

연구팀은 롬버그병 환자 5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지방에서 분리 배양한 성체줄기세포를 주사한 결과 5명 모두에서 이식된 지방의 생착률이 높아져 눈에 띄게 호전된 치료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임상 중간결과는 5월7일 춘계 대한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11>